

환경ISC

# 탄소중립 시대 고급인재 육성 전략

-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40여개국 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4개국은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은 국내 기업에 탄소중립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국내 환경〉



〈탄소중립 국외 환경〉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은  
생존 및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탄소집약도와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산업계·지자체 등의 현장에서 흡수·저장·저감·포집 기술  
및 정책의 효과와 이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부가가치 직무!**

이는 기업 및 기관의 탄소중립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는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이 진행된 대학원 선정절차에서

## 고려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2개교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 고려대학교 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 고려대학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 탄소중립 유관분야에 연구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주제와 내용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내실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구성, 산업 수요와 연구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향후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 커리큘럼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 확인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축했습니다.
- 특징점은 대학원 온라인 정보제공 창구로 'KU OCW(Open Course Ware)' 기반 교육자료를 공개해 학습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공학대학교 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 한국공학대학교가 소재한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화 단지로 1만 9,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중 3,200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 2022년 5월, 기업들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내에 탄소중립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 커리큘럼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 확인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축했습니다.
- 특징점은 총괄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개설과목, 교육과정, 산학연계프로젝트 등에 대한 검토와 조언으로 사업의 성과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이  
탄소중립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대응·선도하고  
정책, 제도, 기술의 연구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고급 인적자원 개발까지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